



## 중국

## 합병을 통한 중국내 제2의 사료회사 출범

중국에서는 뉴홉(New Hope)사가 리헤이(Liuhe)사를 인수함에 따라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료회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105개의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P그룹이 현재 중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 농업연구소의 케빈홀씨는 NH그룹이 90개의 사료회사를 통해 월 49만5천톤(70만톤 생산 규모/월)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CP그룹의 월 55만톤(65만톤 생산규모/월) 보다는 물량이 적다고 언급하였다. 규모가 확대된 NH사는 시추안과 상동지역 일대에 위치하면서 사료생산, 공급의 중요한 요충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평 타이유와 청두 다인유 낙농회사와 소유권 협정을 통한 이익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NH사와 합병된 리헤이사는 40개의 사료회사 이외에 4개의 동물약품회사, 4개의 동물약품회사, 1개의 마이크로 환경회사, 11개의 동물 육종농장, 7개의 계육가공공장과 두 개의 난가공공장 등 70개의 자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APM)

## 베트남

## 2005년까지 1천만수 살처분 키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베트남이 금년말까지 1천만수의 닭을 살처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이바봉 베트남 농업 장관은 금년까지 40명의 인원을 잊어간 조류인플루엔자를 박멸시키기 위해 이미 백신을 한 닦을 포함해 1천만수의 닭을 금년말까지 살처분을 실시하고 최후 수단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일시적으로 닭사육을 중지하는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앞으로 백신접종에 63억을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장 닭소비가 많은 내년 정월초하루가 오기 전에 H5N1바이러스의 박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PM)

## 인

## 새로운 개량 재래닭 품종 인기

인도에서 수십종의 재래닭이 사육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VH육종회

사에서는 시골주부들을 겨냥한 새로운 재래닭을 육종, 생산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로일러(Kuroiler)라고 명명되어진 이 재래닭은 싸움을 좋아하는 수탉 종류와 육계를 교잡한 것으로 인도의 고유 재래닭 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탉의 경우 90일에 1.7kg에 도달하면서 고유의 재래닭 240일에 1.2kg에 도달하는 것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란계는 생산 연령동안 180~200개의 계란을 생산해 고유의 재래닭 30~40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골주부들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금에 여유가 생기면서 닭고기 등 육류를 찾게 되면서 닭고기 소비증가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M)

## 독일 & 필란드

### 비린내 나는 계란 문제 해결

핀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그동안 갈색란에서의 비린내가 음식 조리과정에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종회사(R품종)와 핀란드의 농업연구팀(MTT)은 계란에서의 비린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 연구팀은 갈색 산란계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은 유전적인 결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갈색계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5~10%의 닭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백색계에서는 유전적인 결함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R품종사에서는 유전적 결함이 없는 병아리 생산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을 해오면서, 금년 말부터는 갈색란의 비린내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럽에서는 최근 갈색란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핀란드는 아직

5%만이 갈색란을 소비하고 있으며, 독일은 70%가 갈색란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

## 우크라이나

### 채란업 급속 성장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닭 사육수수는 1억4천7백만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가 증가하였으며, 계란 생산의 경우 1/4분기 42억4천만개로 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계란생산량이 160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계란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사육수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WP)

## 제2회 Poultry Focus Asia 2006, 내년 2월

지난 2004년 태국에서 개최된 제1회 Poultry Focus Asia가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끝나면서 오는 2006년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제2회 Poultry Focus Asia 2006은 내년 2월 20~22일까지 태국 방콕에 위치한 미라클 컨벤션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포커스는 전세계 12개국에서 저명한 강사들이 참석하여 양계에 관련된 영양, 사양, 질병, 육종, 유통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미나 및 토론행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3일 동안 1인당 7천바트(약 18만원)로 전문적인 지식과 양계경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양계인 및 관련인들에게는 전 세계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하였다.(NCC)